

Date: 20 Iyar 5786 (May 7, 2026)

Torah Portion: Behar / Bechukotei

Topic: 인간 본성의 초월

자신의 본성적 기질을 정복하는 것, 즉 부정적인 성품(미도트, middot)을 다스리는 공덕은 실로 위대합니다. 미드라시(Midrash)는 이스라엘에 비가 절실히 필요했던 랍비 탄후마(R' Tanchuma) 시대의 일화를 다음같이 전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말랐을 때에,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가르쳤지만, 단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혼해준 [문제를 일으켰던]전처에게 돈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옷도 없고 큰 고통에 처한 것을 보고자비심이 일어나 돈을 주었습니다. ‘네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저는 실천한 것뿐입니다.” 랍비 탄후마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며, 당신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고 자비를 베풀었다면, 하물며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자비를 베푸셔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비가 내렸고 그 땅에 비를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복이 찾아왔습니다. 금식도 기도도 신성한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개인이 이혼한 전부인에게 자신의 불편한 사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비를 보여준 단 한 번의 행동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를 내리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으며,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랍비 시몬 바 요하이(R' Shimon ben Yochai)는 “나의 공덕으로 내 세대 전체를 엄중한심판에서 면제할 수 있다. 만약 우찌야의 아들 요담(Yotham)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모든 세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숙카 45b)라고 선언했습니다. 요담의 어떤 점이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라쉬(Rashi)는 그가 유독 의롭고 겸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 우찌야는 25 년 동안 나병(tzaraas)을 앓아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담이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는 단 한번도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린 모든 법령은 아버지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 하나의 특성, 즉 명예욕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신성한 심판으로부터 보호할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푸림(부림절 Purim) 이야기에서 탈무드는 묻습니다. 에스더는 왜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준비한 잔치에 하만을 초대했을까요? 한 가지 답은 그녀가 “혹시 여호와께서 주목하시어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지도 모른다”(메길라 15b)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신다는 뜻일까요? 라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내가 이 사악한 자에게 아첨하고 나의 명예를 깎아내려야만 하는 이 강요된 상황을 그분께서 보실지도 모른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고,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유배지의 예후다인들의 구원이 자신의 내면에서 흐르는 성품을 극복하고 개인적 명예를 내려놓는 자신의 한 행위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 제자에게 매 공부를 400 번씩 반복해서 가르쳐야 했던 랍비 프레이다(R' Preida)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 프레이다는 다른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평소처럼 400 번을 복습해주었지만,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제자는 “스승님께서 어딘가 가서야 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언제 떠나실지 몰라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랍비 프레이다는 “다시 시작하자.

집중하거라, 내가 다시 가르쳐 주마"라고 말하며 자료를 다시 400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400 년의 수명을 더 연장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와 네 세대 전체가 내세(World to Come)의 자격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모두를 주어라." 단 한 명의 학생을 이런 식으로 가르칠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노력이 헛수고처럼 보인 후에 다시 시작할 사람은 더더욱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 프레이다는 자신의 좌절감을 다스렸고, 이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대 전체에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탈무드의 현자 아비미(Avimi)는 한때 '메나코스(Menachos)' 편에 대한 배움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배우기 위해 제자인 라브 키스다(Rav Chisda)를 찾아갔습니다. 게마라(Gemara)는 묻습니다. 왜 그는 그의 제자 라브 키스다를 부르지 않았고 그가 갔을까요? 아비미는 이런 방식이 자신의 노력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메나초트 7a). 왜 그랬을까요? 아비미는 토라의 지식의 영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성적인 성품을 정복하는 공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어 명예로운 자리를 떠나 자기 제자의 문학생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성품을 극복하는 것이 토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신성한 도움을 불러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와 대조됩니다. 현인들은 가르칩니다. 만약 토라를 오래 공부한 학자가 오만해지면 그의 지혜의 영이 떠나게 되고, 화를 내면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폐사함 66b).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의 통괄적 원칙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면의 정복이 그 위대함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극복하는 것, 명예를 포기하는 것, 좌절감을 다스리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러한 행위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였을 때에, 그 인내를 통해 이겨낸 사람은 그 자신(네웨쉬;기질)을 정련할 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영이 그를 포함하고 있는 온 세상에 축복과 자비,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엘로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52:10)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사.66:21-2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엘로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엘로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1:1-4)